



“매주 토요일, 정약용 만나러 남양주로 오세요” 남양주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6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정약용 유적지 내 잔디마당에서 ‘여유당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여유당 토크 콘서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위인 정약용’의 모습이 아닌 ‘인간 정약용’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으로 그의 취미, 성격, 좋아하는 음식과 같은 소소한지만 색다른 질문들을 통해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정약용에 대해 새롭게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이번 콘서트는 남양주시 공식 블로그에서 사전 예약하거나 현장 접수를 통해 참석 가능하며 현장 공연과 온라인 유튜브(남양주시 MY-NTV) 생중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예정이다. 이화우·이도환 기자

포천시 사방댐 건설 집중호우 산사태 대비

(이동면 도평리)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맞아 정덕재 포천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이동면 도평리 사방댐 공사현장, 산사태취약지역 등을 현장 점검했다.

사방댐은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및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포천시는 장마철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이동면 도평리 일대에 사방댐 건설을 추진 중이다.

정덕재 권한대행은 “공사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장마 이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이동면 도평리 사방댐 공사와 창수면 주원리에 사방댐 1개소, 이동면 연곡리와 신읍동의 계류보전 공사를 6월 말까지 완료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문석완 기자



지난 23일 정덕재 포천시장 권한대행은 이동면 도평리 사방댐 공사현장, 산사태취약지역 등을 현장 점검했다. 포천시 제공

용인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지원... 업무 효율↑

근로·작업 환경 개선 비용 일부 지원
51곳 4억4000만 원 투입 48곳 완료

용인시가 추진하는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이 참여 기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근로·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 비용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 주는 제도로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작업환경개선 등으로 구분된다.

시는 올해 51개의 중소기업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4억4000만 원을 투입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48곳의 기업이 환경 개선을 완료했고 오는 7월 중으

로 나머지 3곳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엔디에스솔루션(주) 등 3곳의 기업이 화상 회의실을 구축해 코로나19로 필요성이 대두된 비대면 회의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또 25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이호지식산업센터는 건물 외벽 방수 공사를 진행해 고질적인 장마철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처인구 포곡읍 소재 대흥스프링은 직원 식당과 공용 계단 보수 공사 등을 진행했다.

어대용 대흥스프링 대표는 “시의 지원을 받아 기업 환경을 개선한 후 근로 환경이 좋아지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됐다”며 “다른 기업들에게도 용인시의 지원을 심분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처인구 이동읍에 있는 에코윈드는 적재대와 작업대 등을 추가로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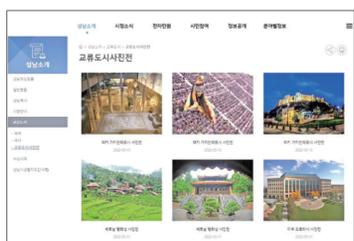
임갑순 주식회사 에코윈드 대표는 “그동안 정리할 공간이 없어 바닥에 쌓여 있는 부품들이 적재대 설치로 깔끔하게 정리돼 산업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며 “작업자들의 업무 효율이 크게 높아져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동필 기업지원과장은 “더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아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나 금액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7월중으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에 참여할 관내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현장 실사 등을 거쳐 12월 말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최정용 기자

성남, 해외 교류 도시 온라인 사진전 개최

시 홈페이지 활용, 오늘부터 연중
자매·우호협력 도시간 유대감 강화



성남시 홈페이지에 오늘부터 개설하는 해외교류도시 사진전 모습.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시 홈페이지를 활용해 오늘부터 연중 ‘해외 교류 도시 온라인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뜸해진 자매·우호협력 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해 유대감을 강화하고, 시민에 해외 교류 도시에 관한 이해를 높여려는 취지다.

미국 오로라시, 중국 선양시와 후이저우시, 베트남 탕화성, 터키 가지안테프시 등 4개국 5개 도시가 온라인 사진전에 우선 참여했다.

시 홈페이지(성남소개→교류도시→교류도시 사진전)를 접속하면 해당 국가의 자연환경, 문화축제, 풍습 등의 사진을 도시별 10~20점씩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이중 중국 선양시에 관해서는 한·중 교류

30주년을 맞아 선양 고궁 봉화루의 설경, 선양타워 야시경 풍경 등의 사진 20점을 올려놴다.

선양시도 성남시를 소개하는 사진전 홈페이지를 자체 개설했다.

선양시 홈페이지에는 성남시 소개 동영상(3분 56초)과 탄천의 벚꽃, 정자동 카페거리, 모란민속5일장 풍경 등 사진 30점이 게시됐다.

성남시는 자매·우호도시의 새로운 사진을 지속 업데이트해 온라인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사진전이 개설되지 않은 브라질 피라카바바시,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시, 중국 장춘시, 우즈베키스탄 나만간시, 이탈리아 볼로냐도 참여 의향을 지속 타진해 시 홈페이지에 추가 개설한다. 김대성 기자

파주, 평화농장 시험재배 작물 파종·모내기 실시

남북농업협력사업, 북한 적응성 확인
도 육성 조중생종 벼 16계통·콩 4품종

파주시는 남북농업협력사업 일환으로 시험재배 작물의 북한지역에서의 적응성 확인을 위해 24일 장단면 거곡리 평화농장에서 시험재배 작물 모내기 및 콩파종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내기 및 콩파종 행사는 파주시장,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장, 파주장단콩연구회장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주요 시험재배 작물은 ▲경기도 육성 조중생종 벼 16계통 ▲경기도 육성 콩 4품종 ▲가축의 쌀과 밭콩 등을 활용한 축각본 유기질 비료를 활용한 벼 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남북관계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대북제재가 유효한 현실이지만 현 시점에서 가능한 남북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며 북측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때를 준비 중이다.”라며 “이번 모내기와 콩파종 행사가 씨앗이 되어 향후 한반도 평화시대라는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 남북농업협력사업은 북측 기후와 유사한 평화농장에서 대표 식량작물인 벼와 콩



최종환 파주시장이 평화농장에서 콩파종을 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을 시험재배하여 생산성과 적응성을 검증하고 향후 전면적인 남북농업협력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북제재 하에서도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통일부의 지자체 협력사업 사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9년 장단면 거곡리 부지 14만9278㎡(약 4만5235평)를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2020년 평화농장을 조성하였고, 장단콩 늦서리대 포장, 약용작물 유전자원 포장, 기능성 상품개발을 위한 천년초 포장 등 다양한 특화작물을 집중연구하며 연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평화농장의 일부를 남북농업협력사업 부지로 활용하고 있다. 최연식 기자

시·출자출연기관 함께하는 ‘하남형 ESG’

추진동력 확보위한 협업회의 개최
협업시스템기반 ‘ESG 원 팀’ 조성

하남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협업체계 조성과 ‘하남형 ESG 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시와 출자출연기관 간 협업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시 본청 회의실에서 가진 ESG 협업회의에서는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 하남문화재단 ESG 담당자가 참석해 ▲ESG 추진 협업 현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 방향 ▲협업체계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도시공사의 사회적 채권 발행, 문

화재단의 지역예술인과 함께 하는 문화정책 등을 보다 잘 살려 하남시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하남형 ESG 사업’을 발굴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시와 출자출연기관이 함께 하는 ‘ESG 원 팀’을 조성하기로 했다.

신욱호 시장 권한대행은 “ESG는 시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렵다. 시와 출자출연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도시구축과 ‘하남형 ESG 사업’ 추진을 위해 시와 출자출연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하남시가 가진 장점은 극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자백 기자



광명도공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6·1지선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광명도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교통약자의 투표 참여를 위한 무료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광명도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교통약자의 투표 참여를 위한 무료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전투표일 이용 희망자는 사전투표 시작일 전날인 오는 26일까지, 선거일 이용 희망자는 선거일 전날인 오는 31일까지 전화(☎02-2610-2000)로 예약할 수 있다. 김원규 기자

19개 마을공동체팀 활동가들 한자리에 모여

오산시, 주민제안 공모 선정 첫 모임
역량·네트워크 강화, 소통의 장 마련

오산시는 24일 2022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몽쳐야 네트워크다”라는 주제로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19개 마을공동체팀의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첫 네트워크 모임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마을공동체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을활동가 교류를 통해 역량을 강화시키며, 매회 후속 대화모임을 진행하여 그동안 느슨해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서로를 격려하

고 배우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마을공동체 활동가 및 구성원은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진행되는 사업단계별(1단계~3단계), 권역별(3 권역)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 각 마을에서의 활동을 공유하고, 선진사례 탐방으로 타 지역의 공동체 활동의 성과도 경험해보면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활동임을 확인하고 공동체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일자리 정책과 최선호 과장은 “마을활동가들의 네트워크는 결국 오산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명식 기자